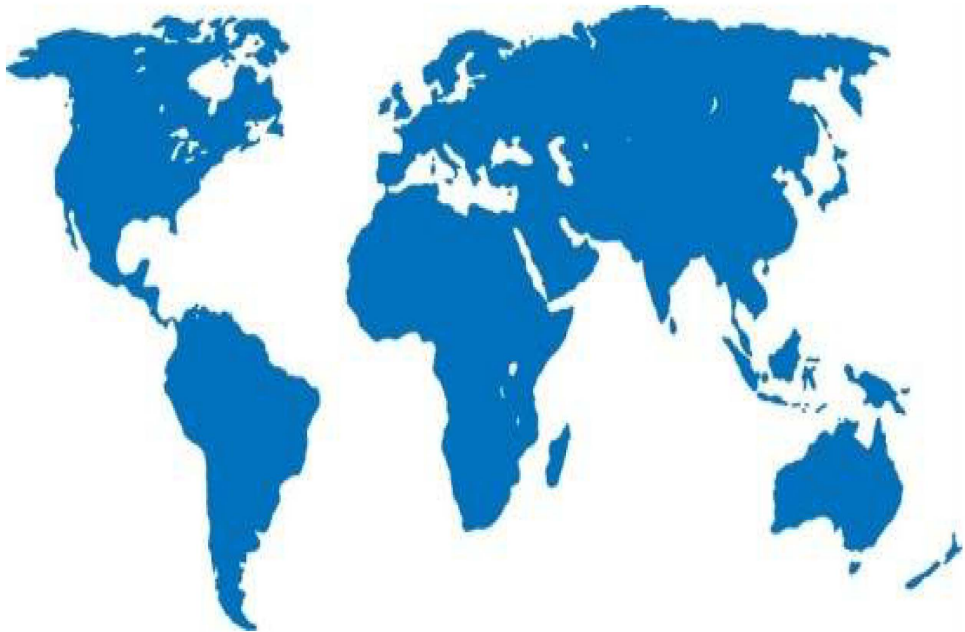


지 구 마 을

● 제 24 호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DAEGU UNIVERSITY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목적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 아래 따뜻한 가슴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육 이론 및 실천에 대한 이해와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함으로써, 만인의 복지와 국가·사회적 요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유능한 교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참스승 교육

- 사도교육의 실천
- 교육현장의 이해
- 전문교육의 심화

열린교육

- 교육의 실천화
- 교육의 개방화
- 특수교육의 활성화

지리교육전공

교육목표

- 자연·인문지리 현상의 지역성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함양
- 지리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유능한 지리교사를 양성

목 차

| | |
|------------------------------------|----|
| 제 1장 . 지구마을 24호를 제작하며 | 5 |
| 지구마을 24호를 펴내며 | 6 |
| 2017년, 다붓다붓, 그리고 아디오스 | 7 |
| 꿈을 자유롭게, 학우들이 아름답게!! | 9 |
|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 11 |
| 2017, 2018년도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 12 |
| 2017년도 답사 준비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15 |
| 2017년도 편집부 | 16 |
| 지리교육과의 2017년 | 17 |
| | |
| 제 2장 . 우리가 지교의 새내기다. | 19 |
| 17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 20 |
| MT 소감문 | 27 |
| | |
| 제 3장 . 우리들의 발자국 - 답사기 | 29 |
| 춘계 정기학술 답사기 | 30 |
|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곳, 답사를 통해 다녀오대! | 33 |
| 울릉도 답사기 | 38 |
| 베트남 답사기 | 43 |

| | |
|-------------------------------------|----|
| 제 4장 . 교수님의 여행답사기 | 49 |
| 유목민과 초원의 나라, 몽골에 부는 도시화의바람 | 50 |
| 제 5장 . 지리 관련 핫 이슈 | 60 |
|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규모 5.4 지진. | 61 |
| 포항서 5.4 강진...사상 첫 수능 일주일 연기 | 63 |
| 제 6장 . 지리 관련 핫 이슈 | 66 |
| 지리교육과 연락망 | 67 |
| 편집후기 | 72 |

제 1장 . 지구마을 24호를 제작하며

1. 지구마을 24호를 펴내며 - 편집부장 문성제
2. 2017년, 다붓다붓, 그리고 아디오스 - 2017년 학회장 정태진
3. 꿈을 자유롭게, 학우들이 아름답게!! - 2018년 학회장 박세황
4.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5. 2017, 2018년도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6. 2017년도 답사 준비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7. 2017년도 편집부
8. 지리교육과의 2017년

지리교육과의 2017년



지구마을 24호를 펴내며

편집부장 14학번 문성제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구마을 24호 편집에 편집부장을 맡게 된 14학번 문성제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와 18학번 신입생들에게 학과를 소개하는 의미로 '지구마을'은 중요한 책이며, 그 책의 집필을 담당할 때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하나하나가 경험이라 생각하며 시작하였고, 그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구마을 24호를 처음 집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전의 지구마을을 보면서 손쉽게 완성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구마을 이라는 책의 이면에는 그 해 편집부들의 엄청난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을 이번에 집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바쁜 방학 와중에 부원끼리 약속을 해서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여 역할분담, 편집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2017년을 마무리해준 지리교육과 학우 분들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8학번 신입생들을 위해서 저희 편집부원들은 추운날씨에도 모여서 작업을 하면서 지구마을의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 나갔습니다.

이번에 편집부장을 맡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큰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답해준 전 편집부장 13학번 안병진 선배와 13학번 구동현 선배의 도움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 부장의 말을 잘 들어주고 노력해준 부원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2017년, 다뽏다뽏, 그리고 아디오스

17년도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3학번 정태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3학번 정태진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지나가고 황금 개띠의 해 2018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학생회장 입후보자로 나섰을 때부터 마지막 졸업생 페스티벌까지의 모든 행사와 학우 분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학우들이 행사 간 아무도 큰 사고 없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방학을 맞이하여 마무리 지어주신 지리교육과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처음 내세운 각각의 공약들을 100% 실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학우 분들에게도 죄송하고 제 자신도 다시 반성하며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성했던 점들이 밑거름이 돼서 미래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이란 자리가 한 과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어나 제 잘못된 행실이 과에 피해와 누를 끼치지 않을까 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감과 조심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회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저에게 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조언과 충고를 해주신 지리교육과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장 원로교수이신 최병두 교수님, 아버지와 같은 인자함으로 제자들을 살피주신 손명원 교수님, 학과장을 역임하시며 과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며 필요에 의할 때에는 따끔한 충고를 해주신 임석희 교수님,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애로사항을 항상 들어주신 오정준 교수님, 비록 연구년으로 인하여 1학기 때는 자리를 비우셨지만 다시 자리로 돌아오셔서 어머니와 같은 다정함으로 대해주신 안방마님 이영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의 주인공들이신 우리 학부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학회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학업도 벽차실 텐데 과행사도 자리를 빛내주셔서 재밌는 추억 쌓을 수 있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제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과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고, 남아있는 학부생들은 과의 발전을 위하여 학업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신입생 새내기들은 지리교육과를 입학하신 만큼 적응을 잘하여 힘든 점이 있으면 선배에게 조언이나 고민을 해결 받을 수 있는 정이 넘치는 과를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파이팅 넘치던 2017년 다붓다붓 학생회 소속 식구들! 민경이, 세황이, 현경이, 영범이, 소위(진) 영욱이, 선준이, 민기, 선경이 다들 잘 마무리 해줘서 고맙다. 정말 가족보다 본 날이 더 많아 더욱 가까워졌고 앞으로도 우리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닌 가족 같은 존재로 남았으면 좋겠다. 회의 때 다 모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인계로 저에게 방향이 되어주신 우리 킹갓제너럴총무공 이문수 선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1+1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리교육과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과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애정과 활기가 넘치는 과로 계속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럿이 다 함께, 다붓다붓!

꿈을 자유롭게, 학우들이 아름답게!!

- 2018학년도 제34대 새나 지리교육과 학생회 -

18년도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3학번 박세황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8학년도 새나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3학번 박세황입니다. 이렇게 지구마을을 통해 학우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올해 저희 지리교육과에 합격하신 18학번 학우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2013학년도에 입학하여 신입생 OT 때 어색해하고 수줍어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러 2018년이 되어 지금은 학생회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장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과생활을 하는데 선배,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때의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들을 떠올리며 신입생 학우여러분들께도 똑같이 힘을 써 보려 합니다. 학과생활 도중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말씀해주시면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 34대 지리교육과 학생회는 새나 지리교육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나'란 자유롭게 아름답게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로써 그 뜻에 부합하도록 꿈을 자유롭게, 학우들이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슬로건에 맞게 학우여러분께서는 지리에 대한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해 저를 도와 많이 고생할 우리 새나 지리교육과 학생회 부학회장 이선경 학우를 비롯한 집행부 임원 여러분들께 잘 부탁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한 작년 제33대 다붓다붓 지리교육과 학생회의 정태진 학우를 비롯하여 작년 한해 지리교육과를 위해 힘써주신 다붓다붓 학생회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며, 그밖에도 감사준비위원회 위원장 황진성 학우를 비롯한 담준위 임원여러분,

편집부장 안병진 학우를 비롯한 지구마을 편집부 임원여러분들에게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과 함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작년 한해 지리교육과를 위해 힘 써주신 많은 분들에 이어서 저희 새나 지리교육과 학생회도 학과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1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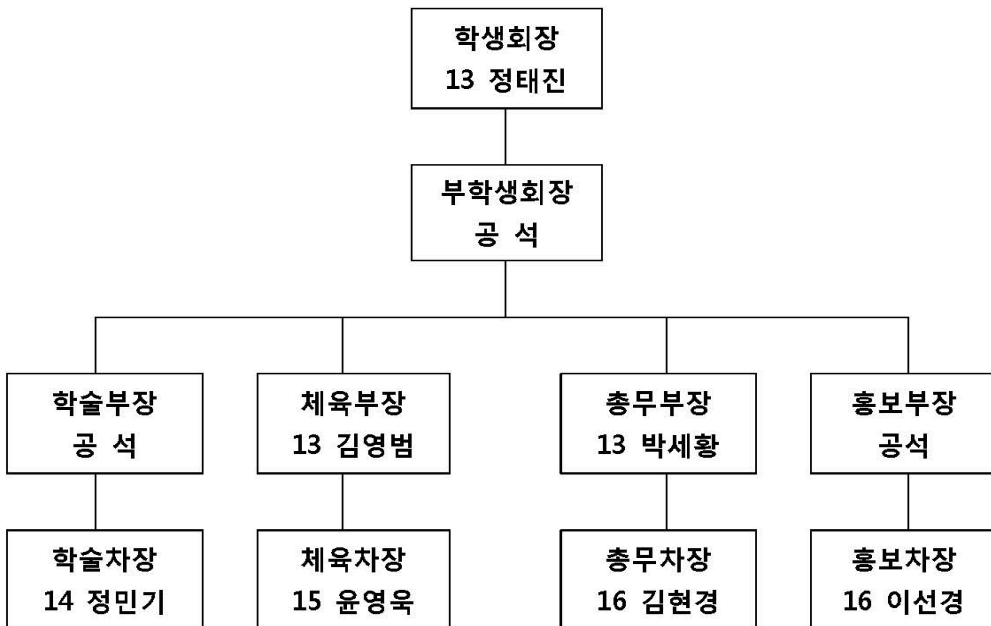
다시 한 번 신입생 학우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자유롭게, 학우들이 아름답게~ 새나 학생회 화이팅!!!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지리교육과 교수진 소개

| | |
|---|--|
|  | <p>최종학력 : (영) UNIV. OF LEEDS 문학박사 (사회지리학 전공) 담당과목 : 인문지리학, 경제지리, 사회지리, 정치지리 관심분야 : 사회지리학, 경제, 정치지리학, 환경지리학 전공 경력 :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방문교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p> |
|  | <p>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지형학 전공) 담당과목 : 자연지리학, 기후학, 자연지리조사법, 토양 및 생물지리, 자연지리교육론 관심분야 : 자연지리 전공(지형학) 습지 · 하천 생태 경력 : 대한 지리학회 이사, 한국지형학회 이사</p> |
|  | <p>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인문지리학 전공) 담당과목 : 한국지리, 도시지리, 인구지리, 인문지리교육론, 지역개발론 관심분야 : 도시지리학 전공 경력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역임</p> |
|  | <p>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지리교육 전공) 담당과목 : 지리학입문, 문화지리, 관광지리, 지리교육론, 지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 관심분야 : 지리교육학, 관광 지리학 전공 경력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편집부장, 대한 지리학회 홍보이사</p> |
|  | <p>최종학력 : (영) UNIV. OF BRISTOL 철학박사 (사회정책학 전공) 담당과목 : 사회지리, 세계지리, 지도학과 GIS, 인문지리조사법 관심분야 : 인문지리 전공/ 사회지리, 도시재생 경력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p> |

2017년도 집행부



2018년 집행부 소개 및 포부

▶ 부학생회장 16 이선경

안녕하세요!! 새내기여러분~~ 2018 새나학생회의 꽃 부학회장 이선경이라고 합니다!! 일 년 동안 재미있는 행사 많이 진행 할 테니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주 봐요♥♥

▶ 총무 13 위희범

안녕하세요! 이번 34대 지리교육과 학생회 총무부장을 외롭게 맡고 있는 13학번 위희범입니다. 과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며 여러분의 즐거운 과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총무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학번 때문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ㅎ

▶ 교육임용부장 13 김민환

안녕하세요! 교육임용부장 13학번 김민환입니다. 학점마일리지 잘 이용해서 모두 좋은 선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당^^

▶ 교육임용차장 17 황윤정

안녕하세요! 2018 교육임용차장을 맡은 황윤정입니다.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부장 13 김영범

안녕하세요! 문화체육부장13학번 김영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차장 17 박석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차장 17학번 박석희입니다! 올해도 피구는 저에게 맡겨주
십쇼 함께 꿀잼 지교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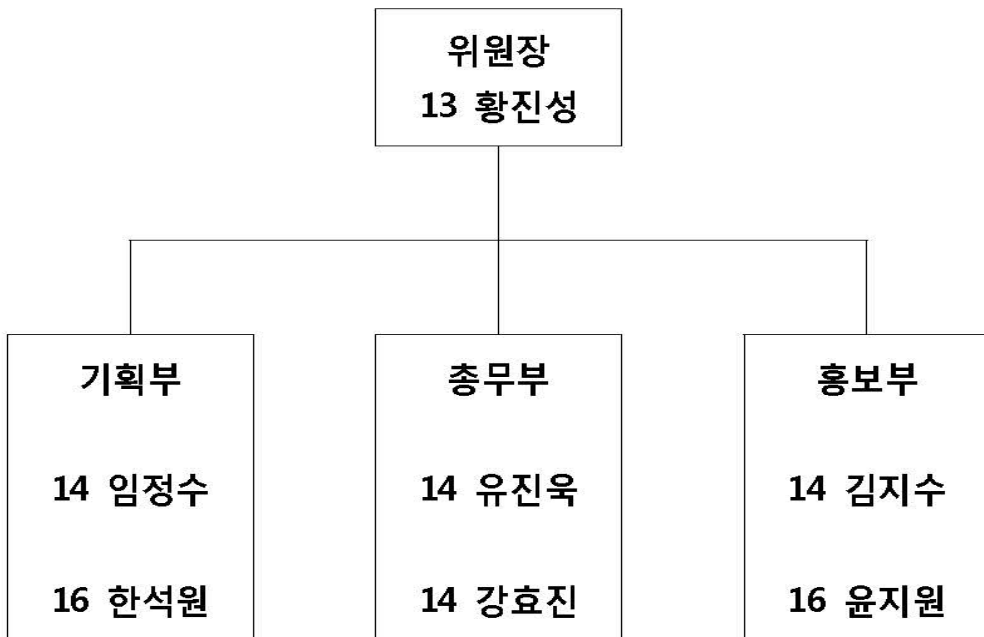
▶ 홍보부장 16 김 휘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홍보부장 김휘입니다! 모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
학회장 이선경 학우에게 물어보세요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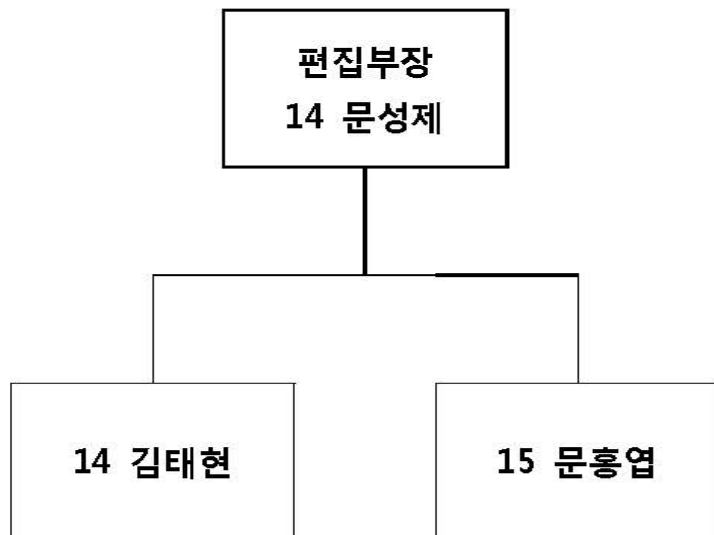
▶ 홍보차장 17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18학년도 홍보차장을 맡게 된 17학번 박진우입니다. 올 한 해 재
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봐요~!!


2017년도 답사 준비 위원회




2017년도 편집부





지리교육과의 2017년


| | |
|---|--------------|
|  | <h3>졸업식</h3> |
| <p>2월 17일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지리교육과 식구들이 모여 졸업하는 선배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p> | |

| | |
|---------------------------------|--|
| <h3>입학식</h3> |  |
| <p>2월 24일 17학번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p> | |


| | |
|--|--|
| <h3>신입생 페스티벌</h3> | |
| <p>새로 입학한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해 3월 13일 신입생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입학환영하고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p> | |

| | |
|---|-----------------|
|  | <h3>종합 M.T</h3> |
| <p>3월 24일 ~ 25일 으로 종합 M.T를 다녀왔습니다. 지리교육과 학우들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자리가 되는 날 이었습니다.</p> | |

| | |
|--|--|
| <h3>사범대학 출범식</h3> |  |
| <p>4월 4일 사범대학 출범식 행사에 참여하여 새로이 선보이는 사범대학 학생회장들의 포부를 보았습니다.</p> | |

| | |
|---|---|
|  | 춘계 정기학술 답사 |
| | 4월 27일 ~ 29일 총 2박 3일에 걸쳐서 일대로 춘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지에서 열심히 보고 느끼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 |
|---|
| 대 동 제 |
| 5월 30 ~ 6월 1일 대구대학교 축제인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과도 주막을 열어 선후배가 모여 즐겁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

| | |
|---|---|
| 추계 정기학술 답사 |  |
| 각 학년 별로 1학년 안동·강원도일대, 2학년 울릉도, 3학년 베트남으로 추계 학술답사를 다녀왔습니다. | |

| |
|--|
| 졸업생 페스티벌 |
| 12월 5일 졸업을 앞둔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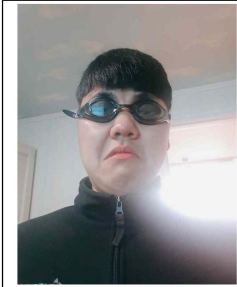
2017 춘계 정기학술 답사

제 2장 . 우리가 지교의 새내기다.

1. 17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2. M.T 소감문 - 17학번 이다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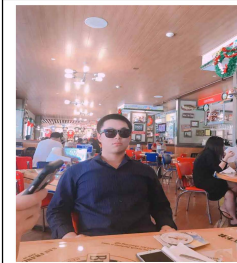


17기5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강민구

감투에 큰 욕심을 보여 학회장을 위한 강인한 정신력을 위해 해병대에 자진 입대하여 귀신을 잡았으며 지교 대표 술탱크로써 술자리에서 미친 듯한 템포를 보여준다. 잡히면 도망가는 거 추천!



김경현

더위를 많이 타 철원으로 가기로 한 군인. 머리를 밀고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 술을 많이 못 마시니 유의할 것!



김기현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왔습니다. 외질을 닦았고 축구 역시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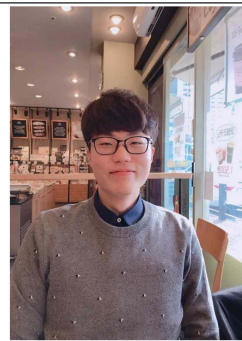
김기훈

과에서 팬 페이지까지 있을 정도로 지교대표 얼굴천재이다!! 이걸 보는 사람이라면 당장 가입할 것. 축구를 매우 사랑하는 순정남이다.



김대성

평소 술자리를 멀리하고 바른 생활을 하며 도서관에서 자주 출몰되어 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다. 단지 키가 조금 작을 뿐 마음은 크고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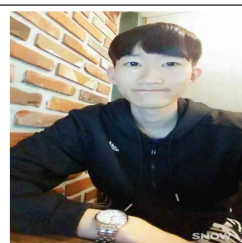
김병준

양반의 고향 안동 출신으로 전자 제품과 친하지 않고 게임을 일체 하지 않으며 욕이라곤 할 줄 모르는 순수한 사람. 현재 인생의 계기를 찾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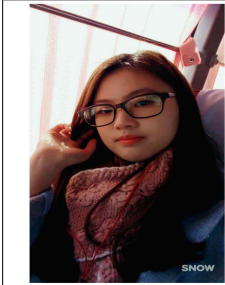
김승현

애기라고 불리며 정이 많고 착해서 모든 친구들이 사랑함. 알쓰지만 술을 사랑하는 모순쟁이이며, 지교대표 잠순이라 연락이 안 된다면 자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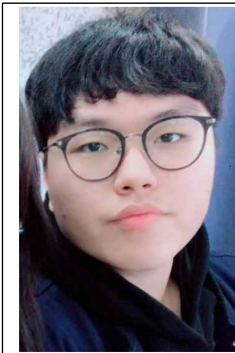
김정훈

반갑습니다 김정훈입니다.



김지혜

기숙사에서 나오지 않는 숙순이.
언제나 잘 자고있는 잠만보.



김지훈

포항에서 온 김지훈입니다.



김태우

반갑습니다. 김태우입니다.



도영현

매사 완벽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느리다.



박석희

안녕하십니까! 지리교육과 17학번 박석희 입니다. 올 한 해 좋은 추억 만들어요!



박진우

지리교육과에서 꽃을 담당하고 자칭 17 마스크트예요 ㅎㅎ 선후배 상관없이 다 친하게 인사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17학번 박진우 많이 찾아주세요!!



서지수

서지수입니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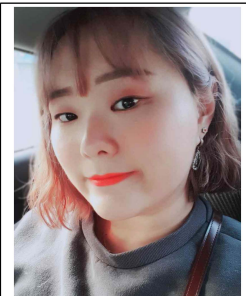
신현진

저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매사에 성실합니다. 그리고 평소 타인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에 열정이 있고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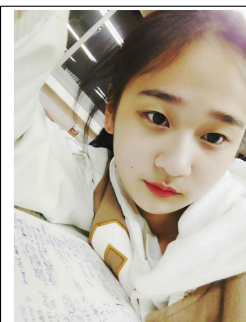
신혜민

성격이 활발하고 다방면에 있어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데, 최애 캐릭터가 무민이라고 한다.



이다영

긍정적인 성격이다. 사진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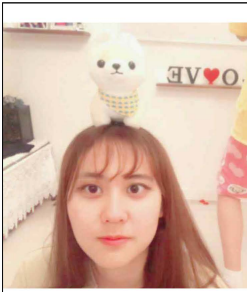
귀찮은 걸 싫어하고 트레이닝복을 주로 입으며 웬만하면 보기 힘들.



이하진

지교대표 행동대장으로 여행하고 노는 것을 좋아해 항상 동기들과 놀 궁리를 생각한다. 주로 화장은 격일제로 시행해서 쌤얼로 자주 출몰하니 주의바람.

| | |
|---|---|
|  | <p>성격이 활발하고 노는 것을 좋아함. 말투가 억세나 화난 것은 아님. 시험기간에도 도서관에서 만날 수 없는 지교 대표 뽀로로.</p> |
| <p>정예원</p> | |
|  | <p>조용하고 모든 일은 열심히 하는 편. 노래듣는 것을 좋아해서 이어폰을 달고 살고 있음.</p> |
| <p>정주용</p> | |
|  | <p>공부 빠고 다 좋아한다. 그 중 영화와 게임을 제일 좋아한다. 요즘 즐겨하는 게임은 레지던트 이블! 좀비게임을 제일 좋아한다.</p> |
| <p>정해든</p> | |
|  | <p>먹성이 좋아서 잘 먹고, 친구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다.</p> |
| <p>정혜경</p> | |



울산3대여신 : 김태희, 유라, 함소영

함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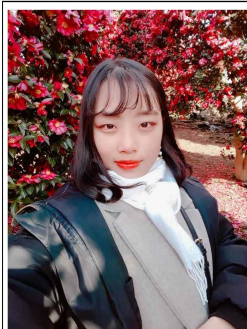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팀의 광팬이며 뭐든지 맛있게 먹고 항상 흥이 넘치는 친구

현은정



유쾌하며 웃음이 많습니다.

황선빈



지교대표 뺨드럼으로 세상만사에 관심이 없어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또한 치마를 사랑하는 요정으로 항상 치마만 입어 바지 입는 날이 드물다. 바지 입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날은 럭키데이 ☆

황윤정

- MT 소감문 -

본격적인 시작

17학번 이다영

지겹도록 입었던 교복을 벗어던지고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자유를 외치며 대학생이 되었다. 고등학생 때 노는 것을 포기하고 공부에만 집중하여 대학교에 온 나에겐 MT라는 것은 매우 설레는 요소였다. 나는 MT를 본격적인 대학생활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며 새내기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기대하는 행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학교에 입학 한 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떠나는 과 행사였는데, 1박 2일 동안 동기들, 선배들과 함께 생활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MT가 몹시 기다려졌다.

MT에서는 신입생들이 장기자랑을 하는데 나는 갑작스레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하게 되어 춤을 연습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장기자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에 1학년이 적은 편이어서 친구들에게 더욱 미안하여 대신 프로그램의 주를 이루는 게임에 열심히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소심해서 게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본래 나는 승부욕이 없어서 순위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게임에 참여하고, 손을 들어 퀴즈에 참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할 것이라 마음먹었다.

“개척지교”를 외치며 사진을 찍는 것으로 설렘을 가득 담은 MT가 시작되었다. 고래불해수욕장에 들러 해안 사빈과 바다를 구경하며 산책로를 걷고, 소중한 사진들도 찍었다. 교수님이 고래불해수욕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숙소로 이동했다. 간단히 짐정리를 한 후 조끼리 모여 집부 선배들이 준비한 게임을 했다.



MT의 뜻에 맞게 단체로 참가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눈 가리고 물건 찾기, 단체줄넘기 등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선배들, 동기들과 더욱 돈독해 질 수 있었다. 장기자랑시간에는 함께하지 못한 대신에 동기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지르며 응원을 열심히 했다.

장기자랑이 끝난 후에는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선배들과 친하지 않아 막연한 벽이 있을 것 같았고, 퇴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술을 마실 수 없는데 혹시나 강요가 있을까봐 걱정을 했었다. 그런데 선배들은 감사하게도 내 사정을 잘 이해해주시고, 혹시 어색해 할까봐 부드럽게 대해 주셔서 정말 즐겁게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덕분에 괜한 걱정을 했던 내 자신이 속으로 민망했었다.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다음날이 힘들기는 했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동기들과 돈독해지고 선배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여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심히 MT를 즐겨서 나중에 조금 피곤했으나, 동기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동안 어색했던 선배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2017 종합 MT

제 3장 . 우리들의 발자국 - 답사기

1. 춘계 정기학술 답사기 - 13학번 황진성
2.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곳, 답사를 통해 다녀오대! - 17학번 신혜민
3. 울릉도 답사기 - 14학번 장민욱
4. 베트남 답사기 - 13학번 박세황

춘계 정기학술 답사기

13학번 황진성

1. 서해안 답사기

- 모래가 보여주는 웅장함, 신두리 해안사구

서해안이든 동해안이든 바다하면 파랑과 조석을 빼놓을 수 없듯이 태안하면 '신두리 해안사구' 아니겠는가. 신두리와 나는 구면이다. 2013년 여름 첫 번째 만남 이후의 신두리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다. 무려 4년의 시간동안 사구 역시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나 변모한 것이 아닐까. 실제로 2013년의 사구의 모습은 한마디로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야생마의 모습이었다면 2017년의 사구는 웅장하지만 어딘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강했다. 해안사구를 그저 '쓸모없는 땅', '공사용 모래의 공급지'라는 인식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인식으로의 변화가 실현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2013년에는 사구 언덕위로 사람이 거닐 수 있었다면 지금은 철저히 모니터링을 통해 안내 방송을 취하고 있었다.

서해안의 사구를 설명하면 꼭 따라다니는 것이 동해안의 사구와의 비교다. 일반적으로 동해안의 모래 공급량이 더 많고 서해 사빈의 모래 공급량은 적기 때문에 서해의 사구공급원도 작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신두리 사구에 적용시키면 혼란이 온다. 분명 서해 사빈의 모래공급량이 적고 배후 사구공급원도 작다고 보는데 왜 서해의 사구 규모가 더 큰 것일까? 실제로 답사 때 사구 일대를 거닐며 둘러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신두리 해안사구의 규모는 거대했다.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이 일반화되지 않다는 것은 매력적이다.

이는 서해안의 사구의 공급원으로 간조시 노출되는 사빈과 해식애의 풍화물질이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이 조차가 크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조차가 크므로 모래가 쌓인 범위는 훨씬 넓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간조 때 드러나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더 큰 사구가 생기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안면도 꽃지해변

동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꽃지해변을 보고 아름다움에 한번 또 크기에 한번 놀랄 수도 있다. 서해안의 해수욕장은 대부분 그 규모가 작다. 만조 때는 모래사장을 얼마 보지도 못한다. 게다가 방조제가 설치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사빈은 일반적으로 파랑의 퇴적으로 만입부에 분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모래의 공급원은 유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해식애의 침식물질이나 해저에서 공급될 수도 있다. 여기서도 동해안과 서해안을 비교할 수 있는데, 동해안의 사빈은 역시나 만입부에 위치하며 모래의 공급원은 하천에서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모래 공급량이 풍부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서해안은 섬이 많아 똑같은 조차여도 간조 때 꽃의 영향이 강하며 섬 때문에 만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파랑의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따라서 사빈은 외해로부터 파랑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점에 포켓비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안면도에서도 침식지형의 하나인 시스텍을 볼 수 있었다. 시스텍 지점의 뒤 쪽으로는 사빈과 연결된 듯 한 모습이 뚜렷했고 그 외에 주변으로는 입자가 작은 연안침식물질을 볼 수 있었다.

- 부안 채석강

채석강 역시 많이 와본 곳이다. 부안의 채석강 하면 정말 정말 넓은 파식대를 단번에 떠올릴 수밖에 없다. 직접 가보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교과서나 TV에서 한번쯤 봤을 법한 장관이다. 그렇다면 한번쯤 '이렇게 넓은 파식대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법하다. 이 또한 동해안과 서해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쉽게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파랑은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파식대의 형성은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오히려 짧다. 이는 파식대에 진입하면 마찰에 의해 파랑에너지가 0에 가까워진다는 점에 주목하면 된다. 또 하나 더 주목할 점은 서해안은 사리가 있기 때문에 파랑이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식의 범위가 오히려 더 넓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해안의 파랑보다 약하기 때문에 파식대가 형성되는 기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부안의 파식대는 후빙기의 파식으로 설명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아마도 최후간빙기 때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답사지를 들렀지만 학과의 답사처럼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장소를 둘러본다는 점에서 답사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란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답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학술적으로 내가 배워온 내용을 발견하고 적용시키는 재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답사를 통해서 무한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틀린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집필된 책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또한 그냥 그 자체를 쳐다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생성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같은 지형일지라도 자연환경에 따라서 형성원인에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곳, 답사를 통해 다녀오다!

17학번 신혜민

지리교육과에 입학하여 1학기 때는 학과전체답사를 다녀왔다면 2학기에는 2017년 9월 26일에서 27일에 걸쳐, 1학년 추계답사를 다녀왔다. 학기 초, 첫 답사는 선배와 동기와 함께했다면 두 번째로 다녀온 이번 답사는 동기들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다. 이번 답사는 지형학적 요소와 인문지리적 요소가 어우러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1학년에게 도움이 많이 된 답사였다.

크게 상징경관, 카르스트 지형(석회동굴), 하천지형(포트홀, 하안단구, 감입곡류하천), 산업지역(폐광지역)으로 나뉜 이번 답사는 평소에 많이 접해 보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더욱 의미 있는 답사를 다녀올 수 있었다.



▲ 본격적인 답사지로 떠나기 전 단체사진

첫 번째 일정은 경북 안동에서 시작하였다. 첫 답사지는 안동의 임청각이었다. 임청각은 대한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자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고, 우리나라 민족에게 애국심과 민족 자긍심을 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제는 독립운동 등의 정기를 끊고자 철도 건설을 명목

으로 하여 훼손시켰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임청각은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며 지켜야 할 유산으로서의 상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에 의해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상징경관은 어떤 의미를 부여시키고, 그 의미를 갖는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상징경관을 중심으로 임청각을 바라보았다. 임청각에서 바라본 기차를 통해 잠시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안동 임청각에서 바라본 기차

그 다음 답사지로는 한반도에서 카르스트 지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 중 하나인 충청북도 단양, 석문에 갔다. 이는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인 베트남 탐 카르스트와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예전에는 석굴의 형태로 있었으나 굴식 바위에 금간 상태로 쪼인트가 무너졌거나 혹은 마식 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석굴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고 아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단양 선들에서 단체사진

다음으로 영월에 갔다. 영월에서는 요선정과 요선암 그리고 선돌에 갔다. 먼저, 요선정과 요선암에서는 포트홀 혹은 돌개구멍이라 불리는 암석의 구멍을 봤다. 포트홀은 '속이 깊고 둥근 항아리 구멍'이란 의미로 하천에 의해 운반되던 자갈 등이 오목한 하상의 기반암에 들어가 유수의 소용돌이와 함께 회전하면서 커다란 항아리 모양으로 기반암을 마모시켜 발달한 지형이다. 총 4단계로 발달하며 진행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3단계로 진행된 포인트를 만나볼 수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포트홀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었다.

영월 선돌은 지리교육과의 대표 장소로 선돌뿐만 아니라 하안 단구의 표준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두 개의 돌이 서 있다고 하여 선돌이라고 불리는데, 선돌을 중심으로 하여 하안단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하안단구를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활양식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내용을 덧붙이면, 카르스트 지형에서 잘 나타나는 돌리네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영월 요선정과 요선암 그리고 선돌의 모습

1일차 마지막 일정으로는 숙소에서 지역 전문가특강으로 이용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으로부터 2일차 일정에 앞선 답사지 예습 특강을 들었다. 2일차 일정에 앞서, 센터장님의 특강을 통해 석탄 산업으로 번창하였지만 석탄합리화정책이후 폐광되어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통한 정선군의 지역 경제 변천과정 등의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일정은 강원도 정선에서 시작하였다. 우리는 두 곳의 산업지역(폐광지역)의 답사지에 갔다.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정선 석탄유물종합전시관(옛 동원탄좌 사복광업소)과 폐광에 예술을 더하여 하나의 문화예술광산으로 새롭게 변신

한 삼척 아트마인(옛 삼척탄좌)에 갔다. 첫 번째로 갔던 정선 석탄유물종합전시관에서는 한창 번창했던 지역이었지만 석탄합리화정책이후 그대로 멈춰버린 그 때의 시절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갔던 삼척 아트마인에서는 앞선 곳과 폐광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곳이지만 예술을 더하여, 문화예술작품과 폐광의 조화로우미를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드라마 속 장소를 직접 가보니 색달랐다. 정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정선아리랑, 정선5일장 등 정선의 문화적인 특색을 가진 장소를 먼저 생각했었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 정선의 지역 경제에도 관심을 갖고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 정선 석탄유물종합전시관(옛 동원탄좌 사복광업소)과 삼척 아트마인(옛 삼척탄좌)의 모습

이번 1학년 추계답사는 문화와 공유의 측면에서 보여주기식 방법을 활용한 내러티브(Narrative) 형식을 도입하였다. SNS인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학과 답사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틀에 걸친 짧은 답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답사지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답사였다. 지리학적으로 답사지를 바라보며 이해하며, 교과서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가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이번 답사는 훗날 교사를 꿈꾸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전에 답사지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현장에서 교수님의 특강을 통해 궁금증을 풀고, 배울 수 있었기에 기억에 오래 남는 답사였다. 다음 답사 활동 때는 미리 알아보고 간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다음 답사 활동도 너무 기대된다! ;)

울릉도 답사기

14학번 장민욱

지리교육과 학생들에게 있어 2학기라고 하면 학년 단위로 가게 되는 추계 학술 답사로 기분이 들떠있을 것이다. 지리학도로서 지리학적 사고로 경관을 바라보고 지리학적 지식을 함양함은 물론 대학생활을 처음부터 함께 해온 동기들과 함께 여서 더욱더 묘미가 있는 답사이기 때문이다. 2017년에도 우리의 전통인 답사는 이어간다. 우리 2학년은 9월26일과 27일, 1박2일 일정으로 임석희 교수님과 함께 울릉도 답사를 가게 되었다. 첫날 대구대 사범대 2호관 앞에서 아침 일찍 집결해 버스로 포항여객선터미널로, 또 거기서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로 이동하는 장장 5시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들은 그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울릉도에 도착한 우리들은 첫날 도동항과 행남 해안 산책로, 죽도, 둘째 날 독도전망대와 독도박물관 등을 가게 되었다.

1. 도동 : 울릉도 행정·물류의 중심

우선 우리 학년 답사에 있어 울릉도를 답사지로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화산섬 중 하나인 것도 있을 것이고, 섬이 거의 없는 깊은 동해에서 약 5천 년간의 화산활동으로 우뚝 솟아있는 모양새, 푸른 바다와 섬, 독특한 모양의 바위와 지질 구조,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산과 숲 등 수려한 자연 경관 등이 선정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3시간 반에 걸쳐 여객선을 타고 도착한 울릉도 도동항의 경관을 봐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암괴석들로 이루어진 산들이 시가지를 품고 있는 가운데 푸른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해변에는 여객선과 택시 등이 즐비해있고 장사하는 노점상과 관광객들로 붐벼 활기찬 분위기였다. 누가 봐도 이곳이 읍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는 울릉군 인구의 30%가 거주하며 울릉도의 문화적·행정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시가지이다. 시가지가 급경사의 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중상화산이라는 자연적 특성을 반영한 것임을 느낄 수 있다. 울릉군의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패스트푸드나 의류, 영화관 등의 부문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업체는 극히 드문 부분 등 사회간접 자본이나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있어 미흡하지만 오징어, 피데기, 호박엿 등을 파는 특산물 가게나 '울릉도팩', '독도팩' 등의 독자적인 메뉴를 구축한 패스트푸드점을 볼 때 관광산업은 정말 잘 발달되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경찰서, 우체

국 등의 관공서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울릉도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 숙소를 잡아 짐을 풀고 울릉도 일정을 행했다.

2. 행남 해안산책로 : 자연의 풍광을 한눈에

처음 간 곳은 '행남 해안산책로'다. 도동항부터 저동 촛대바위까지 잇는 총2.6km의 이 산책로를 이동하면서 푸른 바다는 물론 자연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기암괴석과 원시림을 관찰하며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다만 답사 당시 일부 구간이 통제되어 울릉도 항만의 중심인 저동까지는 갈 수 없었고, 중간에 아쉽게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산책하는 동안 육지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었던 암석들과 지형들을 만날 수 있어 지형학적 지식을 되새길 수 있었다. 선택적 풍화로 인한 별집 모양의 구멍이 특징인 타포니, 해식애의 기저부에 발달한 해안동굴인 해식동, 지하의 마그마가 지층의 틈새를 뚫고 올라와 생성된 납작한 판 모양의 암석인 암맥, 자가각력암 등이 그것이다. 대규모 폭발로 인해 다량의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응회암 위를 점성이 높은 조면암질 마그마가 덮음과 동시에, 화산재와 용암부스러기가 용암처럼 흐르다 쌓인 화산쇄설암이 그 위를 덮고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식애와 해식동굴들이 해안을 따라 곳곳에 나타나는 곳을 보며 암석이 다공질이라 침식에 약해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되새길 수 있었다. 산책로를 거닐면서 휘어진 바닷가 공터에 파라솔을 펴고 해산물들을 파는 간이횃집과 그곳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들도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또 땅과 땅을 이어주는 철제다리 밑으로 보이는 바닷물, 바다와 해식애가 맞닿은 부분의 불그스름한 색감과 그 밑에서 무리지어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바위 틈사이로 자라난 미역과 따개비 등을 볼 수 있어 학문적 가치를 담은 답사에 또 다른 풍미를 더했다. 이렇게 해안산책로를 거니는 동안 지형학 시간에 틈틈이 배운 지식을 상기시키면서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3. 저동 : 울릉도 항만-어업의 중심

원래 행남 해안산책로를 통해 저동항까지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지만 당시 일부 구간이 통제되어 저동항까지는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다음 답사지인 죽도로 향하는 배를 타면서 멀리서 볼 수는 있었다. 저동항은 저동리 일대에 위치한 국가어항으로 울릉도에서 가장 큰 항구다. 도동이 행정과 물류의 중심지라면, 저동은 항만과 어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여객선, 화물선 등 울릉도 내 선박 90%를 수용하며 오징어 활복장, 경매장 등이 밀집된 울릉도 어민

들의 경제활동 중심지다. 저동의 방파제 부근에는 파랑에 의한 차별침식으로 인해 암석이 해안에 돌출된 해안침식지형인 시스택을 볼 수 있다. 바로 촛대바위다. 저동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해질녘이면 출발하는 배의 출어 행렬과 오징어잡이 배의 화려한 등불 등을 보면 장관이라고 한다.

4. 죽도 : 절벽 위의 초지, 그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

우리는 도동항에서 죽도로 향하는 작은 관광선을 타면서 울릉도의 전반적인 외형을 볼 수 있었다. 종상화산이라는 특성상 급하게 흘러내린 용암이 빠르게 식어 온통 절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절벽의 바위 또한 특이하다. 그리고 그 화산 섬을 둘러싸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면서 '수심이 깊은 동해 망망대해에 우뚝 솟은 이 섬은 5000여 년 전 비교적 가까운 과거부터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구나.'라고 지리적 사고를 하면서 자연의 신비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첫날 마지막 답사지인 죽도가 보였다. 죽도는 울릉도의 44개 부속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그 섬의 자태를 배에서 바라보면, 수직에 가까운 절벽 위에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는 직육면체 모양을 하여 마치 호주에 있는 울루루(Uluru/Ayers Rock)를 연상케 하는데, 그 절벽은 모두 기암괴석이고 평지는 초록빛깔을 뽐어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와서 본 죽도의 고도는 생각보다 높았다. 실제 죽도의 높이는 109m라고 하는데, 절벽 위의 푸른 초지를 보려면 적어도 100m는 올라 가야되는 셈이다. 마을에 진입하는 유일한 진입로로 나선형의 364층계를 자랑하는 달팽이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느라 식겁해서 군대에서 행군 훈련으로 가파른 산지를 올랐던 기억이 스쳐지나갔다. 그렇게 계단을 다 오르면 다른 경사진 길들이 들어선다. 대나무로 둘러싸인 산책로, 소나무 숲, 조형물이 있는 휴식처, 죽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유곤 씨의 저택 등을 지나고 나면 드넓은 초지가 펼쳐져있다. 또한 초지를 넘어 보이는 푸른 바다와 수평선이 죽도의 경치에 풍미를 더한다. 특히 죽도에서는 울릉도의 북동 능선과 더불어 관음도와 삼선암으로 이어지는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다. 죽도의 경이로운 경치를 뒤로 하고 도동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는 인생에 남길 만한 가치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5. 독도전망대와 독도박물관 : 독도는 우리 땅

첫날 일정을 끝내고 찾아온 둘째 날 아침, 비바람이 불었다. 일정을 시작하려던 우리에게 울릉도 주민들이 내일 배가 아예 출항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기나긴 추석 연휴를 울릉도에서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풍문을 전해주었다. 끝내 우리는

당일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금전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육지로 나가는 유일한 여객선이 오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도동리에 위치한 독도전망대와 독도박물관을 가기로 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급경사의 '도동길'을 지나 더 급경사인 '약수터길'을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주변의 상가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지리적으로 탐구하면서 가니 힘들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독도박물관의 입구 좌편에는 약수공원이라는 약수터가 있는데, 과거 왜 나라와 싸우던 장군이 돌아가신 뒤에 장군의 갑옷을 이 근처에 묻었는데 이 갑옷이 삭아서 흘러내리는 쇠물이 약수가 되었다고 전해진다고 한다. 이 약수는 토류탄산철천으로 철분, 마그네슘, 염소, 탄산이온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 생리장애, 습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튼 우리는 독도전망대로 향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로 갔다. 독도전망대는 도동과 성인봉, 시동항 등을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독도는 전망대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전망대로부터 87.4km 너머에 있던 독도는 보지 못하여 모두가 탄식하였고 게양된 태극기를 보며 애국심을 다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독도박물관을 관람하며 안타까워했던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독도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1995년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경상북도 울릉군이 대지를 제공하고 삼성문화재단이 건물을 건축하여 기증하였으며, 1997년 8월 8일 개관하였다. 독도와 동해 관련 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관리·교육·홍보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이론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설립목적이다. 독도의 역사를 비롯해 독도가 예로부터 우리나라 땅이라고 명시된 고고학적 문서, 독도의 지형적·생태적·경제적 가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과 그 허구성 폭로, 독도의 용수비대의 활동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다. 심지어 독도를 모델로 한 상품도 전시되어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독도를 못 본 아쉬움을 달래가고 있을 때 KBS에서 독도를 생중계 영상으로 보여주어 탄식했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비가 오는 하늘에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서도의 대한봉과 동도의 우산봉이 솟아있는 가운데 그 주위로 삼형제굴바위, 촛대바위 등의 해안침식으로 생긴 바위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독도는 울릉도 및 제주도보다 앞선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동해 바다 2,000m 아래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되어 지금까지 그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다시금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 답사의 일정이 끝이 났다. 원래 2박3일 일정으로 사동항, 통구미, 성인봉, 나리분지 등의 답사지도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일정을 대폭 축소한 것이 안타까웠지만 여러모로 의미 있고 충분히 지리적으로 사고·탐구할 수 있었다. 특히 지형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곳을 답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뻐다. 종상화산의 울릉도의 기암괴석과 원시림, 급경사의 길을 따라 형성된 시가지와 해변을 따라 나있는 길, 그리고 바다. 정말 매력적인 답사지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약간 부정적이게 느낄 수 있지만,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을 때 일어나는 관광지 인플레이션조차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기상상황 등 예측불가능 했던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배워서 인생 전체로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울릉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 답사였다.

베트남 답사기

13학번 박세황

베트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쌀국수와 커피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믹스커피의 대부분이 베트남의 커피로 만든 것이며, 쌀국수 역시 베트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베트남 국민음식이다.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번 해외답사가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비행기를 타기위해 아침 일찍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설레는 발걸음으로 모였다. 해외여행을 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출국 직전의 공항의 필수코스는 역시 면세점이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미리 주문한 친구들, 직접 보고 구매하는 친구들, 그냥 아이쇼핑만 하는 친구들 등등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비행기에 올라타기 직전의 면세점 쇼핑은 해외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기분 좋은 출발로 설렘을 안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것이다.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하노이를 향해 날아갔다. 약 5시간의 비행에다가 아침 일찍 대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들 피곤했는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잠이 들었다. 물론 그 사이 현지식의 기내식은 우리에게 베트남과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드디어 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하노이 국제공항. 역시나 예상대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동남아의 베트남 하노이는 무척이나 더웠다. 이제 가을날씨가 점점 다가오는 우리나라의 날씨와는 전혀 다른 날씨에 베트남에 온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공항에서 입국수속절차를 밟은 뒤 짐을 찾고 나오니 현지 가이드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첫 일정으로 바로 공항 내 식당에서 쌀국수를 중식으로 먹었다. 역시 현지에서 먹는 쌀국수는 남달랐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쌀국수와는 다르게 향신료향이 강하게 났다. 때문에 먹기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 쌀국수를 먹은 뒤 본격적인 베트남 답사를 위해 버스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약 4시간 30분을 이동하여 하노이에서 하롱베이로 이동을 하였다. 비행기에서 5시간동안 앉아 있었는데 바로 버스를 타고 또 4시간 30분이라니 고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버스타고 지나가는 창밖의 우리나라와는 이질적인 풍경을 보며 현지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니 시간가는 줄 모르고 어느새 하롱베이에 금방 도착 해

있었다. 참고로 베트남은 교통체계가 우리나라처럼 발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거리는 대구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였지만 버스가 빠르게 달려보야 70~80km/h 로 달리기 때문에 5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렇게 첫째 날은 사실상 이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답사지역은 크게 없었다. 대신 장기간 앉아 있으면서 피로가 누적된 것을 알았는지 현지 가이드가 바로 마사지샵으로 안내해 주었다. 대략 10시간가량의 이동기간에 지쳐있던 우리들은 마사지 한 번으로 피로를 한 번에 날려버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있을 답사를 위해 체력을 비축해 두었다. 그리고 호텔 숙소로 돌아와서 첫날밤을 개운하게 보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다. 아침에 생각보다 일찍 눈이 떠져서 아침 일찍 호텔 주변을 돌아다니며 산책을 했다. 호텔위치가 하롱베이 만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하롱베이의 수천 개의 섬의 일부를 미리 보기도 했다. 그런데 느낌이 썩한 것이 날씨가 많이 흐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다.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그대로 적중을 해버렸다. 호텔 조식을 먹고 다시 나와 보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다. 역시 열대우림 기후에 속하는 베트남에서 이러한 소나기 즉, 스콜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가이드가 일정을 바꾸기 시작했다. 원래 오늘 유람선을 타고 하롱베이의 수천 개의 섬을 돌며 답사를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급하게 변경된 일정대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변경된 일정의 첫 번째 답사지는 바로 홍가이라는 곳이었다. 홍가이는 육지에서 바라 보는 하롱베이의 비경을 관찰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하롱베이 만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유람선을 타고 직접 바라보는 것만 못하지만 그래도 육지에서도 수천 개 섬의 일부를 바라 볼 수 있어서 내일로 미뤄진 하롱베이 유람선 답사를 미리 맛보기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중간에 티타임을 가졌는데, 현지 가이드가 추천하는 홍가이의 유명한 카페에서 빗소리를 음악 삼아 커피 한잔의 여유를 가졌다. 베트남의 커피는 주문하면 손님이 직접 내려서 먹어야 했다. 컵 안에는 얼음과 연유만 들어있었고, 그 위에서 우리가 직접 커피를 내려 먹는 것이었다. 그런데 맛은 정말 기가 막혔다. 우선 향이 매우 진했고, 연유의 달달함이 더해져 정말 맛있는 커피가 완성된 것이다. 기상악화로 인해 예정에 있던 유람선을 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커피 한잔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카페에서의 여유를 만끽한 우리는 그 다음 대체일정으로 홍가이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딱히 살만한 물건은 없었지만 다양한 공예품을 볼 수 있었다. 가격도 1달러 내외로 아주 저렴한 편이었다. 혹해서 살까 했지만, 집에 놔두면 쓸 일은

사실 없기 때문에 사지는 않았지만 재밌는 구경을 많이 했다. 기상악화로 인한 대체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아무래도 본 일정이 아닌 대체일정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느긋한 하루였던 것 같다. 홍가이 재래시장을 둘러보니 어느새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다시 첫 번째 숙소로 이동하여 바로 옆에 있는 한식당에서 석식을 먹었는데, 메뉴는 무려 삼겹살이었다. 심지어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이었다. 비록 한국에서 먹는 삼겹살에 비교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타지에서 이렇게 한국의 냄새를 잠깐이나마 맡을 수 있어서 좋았다.

둘째 날이 이렇게 저물어 가고 셋째 날 아침이 밝았다. 셋째 날은 다행히 구름이 개고 아주 맑은 날씨가 나타났다. 둘째 날이 대체일정으로 여유로운 일정이었다면 셋째 날은 미뤄진 둘째 날 일정에 원래 있던 본 일정까지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좀 빠듯했다. 우선 어제 미처 못 했던 하롱베이 일정을 마저 소화하기 위해 유람선 선착장으로 아침 일찍 이동했다. 유람선 선착장은 아침부터 매우 인산인해였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하롱베이를 구경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듯 했다. 수많은 배들 중 드디어 우리가 타고 갈 배가 보였다. 2층 구조의 꽤나 규모가 있는 유람선이었다. 드디어 기대하던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가 눈앞에 펼쳐지기 직적이었다. 일단 처음에는 작은 섬들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점점 부두에서 멀어질수록 크고 웅장한 다양한 생김새의 섬들의 모습이 보였다. 여기서 하롱베이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하롱베이는 베트남 북부에 있는 만의 이름으로,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섬 및 석회암 기둥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명승지이다. 하(Ha)는 '내려오다'라는 뜻이고, 롱(Long)은 '용'이라는 뜻이다. 즉 용이 내려온 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석회암의 구릉 대지가 오랜 세월을 걸쳐 바닷물이나 비바람에 침식되어 생긴 섬과 기암들이 에메랄드 그린의 바다 위로 솟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날카롭게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을 이루고 있는 작은 섬들, 환상적인 동굴이 있는 섬들이 기후나 태양 빛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과 빛깔을 미묘하게 바꾸는 광경 등이 절경을 이룬다.

듣던 대로 하롱베이의 위엄은 상상 이상이었다. 유람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각각의 다른 특징을 가진 기암들과 크고 작은 섬들이 장관을 이루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정박하여 내린 섬도 몇 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티톱 전망대, 천궁동굴, 하늘문, 선녀탕 등이 있다. 모두 석회암 기암, 섬, 동굴들이었다. 특히 천궁동굴은 하롱베이에서 가장 큰 석회동굴로, 안에서는 다양한 스펠레오뎜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람선 답사 도중 중간에 배를 총 두 번 갈아탔는데, 한번은 항루원 쪽배를 타고 항루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항루원이란 원숭이 섬이란



▲ 하롱베이 선상에서 찍은 단체사진

뜻으로 안에는 야생 원숭이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한다. 10명 내외 정도가 탈 수 있는 쪽배로 현지인이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식이었는데 유람선이 갈 수 없는 작고도 아주 낮은 수로를 통과하니 정말 야생 그대로의 땅인 항루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그 야생에서 뛰어 노는 원숭이 가족들도 만나 볼 수 있었다. 동물원에서 원숭이는 많이 봤지만, 야생 원숭이는 처음 보는 터라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항루원에서 나온 뒤 두 번째로 배를 갈아 탄 것은 바로 스피드 보트였다. 커다란 유람선으로 돌아볼 수 없는 하롱베이의 곳곳을 작은 스피드 보트를 타고 여기저기 더욱 자세히 관찰하고 답사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보트가 빠르게 달리면서 물이 사방에 튀고 바람이 많이 불며 모습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거기다 가이드가 특별히 원래는 일반인 출입이 없는 인적이 매우 드문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뜻 깊고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스피드 보트까지 탑승 한 뒤 우리는 다시 원래 탔던 유람선으로 다시 갈아타서 부두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술술 허기가 지기 시작했는데 마침 배에서는 선상 만찬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정말 상 하나가 모자랄 정도로 푸짐한 해산물 코스 요리였다. 정말 아름다운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먹는 선상 만찬은 더욱 맛있었다.

아쉽지만 하롱베이의 절경을 뒤로한 채 우리는 이제 원래의 오늘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하롱베이에서 하노이로 이동하였다. 역시나 약 4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여 겨우겨우 하노이 까지 도착하였다. 어제 기상악화로 인해

오늘 일정이 2배가 되면서 쉴 시간이라고는 차에 있는 시간이 전부였다. 아무튼 이런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하노이로 이동하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우리는 차에서 체력을 충분히 비축해 두었다. 드디어 점점 높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노이 시내에 들어섰다. 베트남은 하롱베이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하노이에 들어서면서 오토바이가 정말로 많았다. 베트남사람들의 주요 교통수단답게 도로에는 자동차보다 이륜차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둘째 날 오후 일정은 차량이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석식을 먹고 바로 호텔 숙소로 이동하였다. 석식은 바로 베트남을 오면 꼭 먹어야 할 한다는 분짜 정식이었다. 분짜 정식은 돼지고기, 쌀국수면 등을 육수에 샤브샤브 식으로 담가 먹는 형식으로 특이한 형태를 보였다. 그런데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듯한 향신료 냄새에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드디어 지금까지 맛있게 잘 먹었던 베트남 음식에 한계가 오나 싶었다. 그러나 한 입 먹는 순간 바로 찌푸려졌던 인상이 그대로 활짝 펴졌다. 생각보다 향신료 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돼지고기는 숯불에 구워 아주 맛있었다. 쌀국수 역시 담백하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해외답사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베스트를 꼽는다면 나는 분짜 정식을 꼽을 것이다. 그 정도로 엄청 맛있었다. 하노이에서 첫 끼를 기분 좋게 해결 하고 난 뒤 호텔 숙소로 이동하여 셋째날 밤을 지새웠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남은 베트남의 일정도 재밌고 보람찬 하루를 기대하며 마지막 날 일정을 향해 버스에 올랐다. 마지막 날 일정의 첫 번째는 버스를 타고 다시 하노이를 벗어나서 닌빈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닌빈은 육지의 하롱베이라고 불리는 번농이라는 곳에 갔다. 하롱베이는 바다위에 석회암 기암절벽, 섬 등이 즐비하게 있었다면 번농은 육지의 강 위에 석회암 기암절벽, 석회동굴 등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다. 이를 답사하기 위해선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는데, 이번엔 커다란 유람선이 아닌 삼판배라고 하는 2인승의 자그마한 배를 타고 이동했다. 삼판배에 두 명씩 짝을 지어 올라타고 현지인이 노를 저어 약 2~3km에 이르는 수로를 타고 이동하였다. 유람선은 빠르게 이동하여 다양한 석회암괴들을 봤다면, 삼판배는 천천히 이동하여 석회암괴들을 가까이서 느긋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배를 타고 석회 동굴 안에도 들어 가 볼 수 있었는데 배에 앉아있었는데도 머리에 닿일 듯 가까이 붙은 종유석을 볼 수도 있었다.

닌빈에서 변동을 여유롭게 답사한 뒤 다시 하노이로 이동하여 마지막으로 하노이 답사를 진행하였다. 그 중 제일 먼저 간 곳이 하노이 시내 한 가운데 위치한 바딘광장 및 호치민 생가이다. 호치민은 베트남 사람들이 영웅으로 여기는 인물로 베트남의 혁명가이자 정치가이다. 구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한 호치민은 혁명운동을 계속하며 베트남의 독립 총 봉기를 주도해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 한 인물이다. 바딘광장은 이러한 호치민의 영묘가 세워져 안장되어 있는 곳으로 그 시신은 방부제 처리되어 보관되고 있다. 이후 호치민 생가를 방문하여 호치민 살아생전에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사를 하였다.

드디어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호안끼엠 호수 및 36거리로 이동하였다. 이 곳은 하노이의 구 시가지로 하노이의 야경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 야경을 보기 위해 베트남 3대 명물 중 하나인 씨클로를 타고 36거리를 돌아다녔다. 씨클로는 택시 비슷한 이동수단으로 한 대에 8명 정도 탈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자유 시간을 통해 호안끼엠 호수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36거리 야시장에 가서 군것질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하노이 공항으로 이동하여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 호치민 생가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

제 4장 . 교수님의 답사여행기

1. 나의 답사여행기: 유목민과 초원의 나라,
몽골에 부는 도시화의 바람 - 임석회 교수님

나의 답사여행기: 유목민과 초원의 나라, 몽골에 부는 도시화의 바람

임석희 교수님

프롤로그

몽골 여행은 내가 지리학자가 되기 이전 어릴 적부터 가졌던, 아주 오랜 버킷리스트였다. 초등학교 어린 시절, 우리를 몽골 인종이라고 하는데 그 원조가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고, 사진이나 글에서 만나는 몽골 초원과 유목민의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재작년 여름, 장마가 끝나갈 무렵, 마침내 그 오랜 희망을 실행에 옮겼다. 이 답사여행기는 그 실행으로 지난 2016년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8박 9일 동안 몽골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주로 울란바토르의 도시화를 중심으로 적은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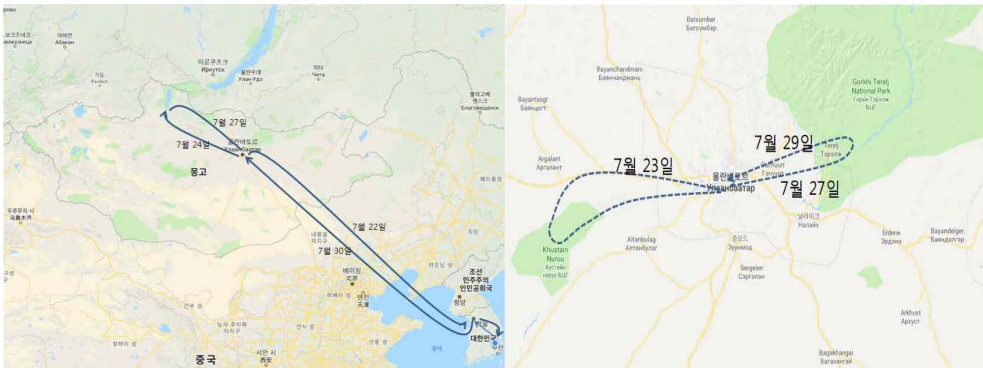


준비와 여정

몽골 답사가 오랜 꿈이었지만, 실상 그 실행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기로 했던 계획이 실수로 무산되면서 그 기간에 몽골 답사를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준비기간은 열흘이 채 되지 않았다. 관광여행사의 패키지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몽골어도 못하므로 먼저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는 현지 개인가이드를 섭외하였다. 현지 가이드는 이주노동자로 한국에서 몇 년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짧은 기간이더라도 단순한 여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본격적인 학술답사는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몽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몽골의 현대적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현지가 가이드가 제시한 여정 중 일부 여정을 변경하고 일정을 조정하였다. 일정을 조정하고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가이드는 구경거리도 별로 없고 남(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을 내가 계속 가자는 것에 내내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몽골은 남한의 약 15배가 되는 나라이다. 사실, 8박 9일의 여정으로 몽골의 이면을 고사하고 걸 모습보기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어차피 모자란 일정이라 설정한 답사주제에 따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울란바토르의 도시 답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배정하였다. 7월 22일 대구를 출발해서 당일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다음, 24일 비행기를 이용해 몽골의 북서부에 있는 흠스골 호수로 이동하였다. 다시 27일 울란바토르로 이동해서 일대를 답사하고 30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몽골 답사의 여정과 Route Map]

몽골 답사의 시작

대구에서 출발하는 몽골 행 비행기는 없다. 인천을 오전에 출발한 비행기는 근 4시간에 걸쳐 황해를 따라 북상해 라오둥과 발해만, 내몽골을 가로질러 울란바토르의 국제공항, 칭기즈칸 공항에 안착하였다. 예상대로 칭기즈칸 국제공항의 규모는 대구 국제공항 정도, 한 나라의 관문공항치고는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몽골의 인구가 300만 명이고 대구 인구가 250만 명, 세력권에 포함되는 주변의 시·군 인구까지 합하면 310만 명이므로 대구도시권과 몽골은 인구가 얼추 비슷하다.



[칭기즈칸 국제공항과 하늘에서 본 울란바토르]

그보다 흥미로운 것은 칭기즈칸이라는 관문공항의 명칭이다. 칭기즈칸이란 사람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지 알지만, 칭기즈칸이란 관문공항의 명칭은 이 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몽골이 칭기즈칸의 나라임을 알리는 것이다. 몽골 답사를 하면서 몽골의 정체성과 관련해 가장 깊이 느꼈던 것은 칭기즈칸이다. 칭기즈칸이란 인물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곳곳에 칭기즈칸이고 또 칭기즈칸이었다. 칭기즈칸은 몽골의 자부심이고 정체성의 첫 번째 요소임을 보았다.

칭기즈칸 국제공항을 빠져나온 차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향해 달렸다. 주변이 약간은 황량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곳곳에 깔끔하고 세련된 고층 아파트가 있고 건축 중이기도 했다. 산이 많은 우리와 좀 다르긴 하지만 여느 도시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와 같았다. 직감으로 '몽골이 빠르게 도시화 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시내에는 생각보다 차가 많았다. 그저 차 많은 정도가 아니라 교통체증까지 있었다. 역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면서 했던 생각, '몽골이 빠르게 도시화 되고 있구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빠른 도시화가 이 유목민과 초원의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나가는지, 그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리적 현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로 하였다. 초원을 기대했지만 몽골에서 처음 막다드린 것은 초원이 아니라 도시였던 것이다.



[테르지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에 만난 칭기즈칸, 말을 타고 고향 땅을 향해서 있다. 어찌나 큰지 그 아래 사람은 개미만 하다. 내부를 통해 칭기즈칸의 아래 배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까마득한 아래, 멀리 초원에 작게 보이는 하얀 천막은 몽골의 전통주택, 게르다.]

몽골의 도시화 현장, 울란바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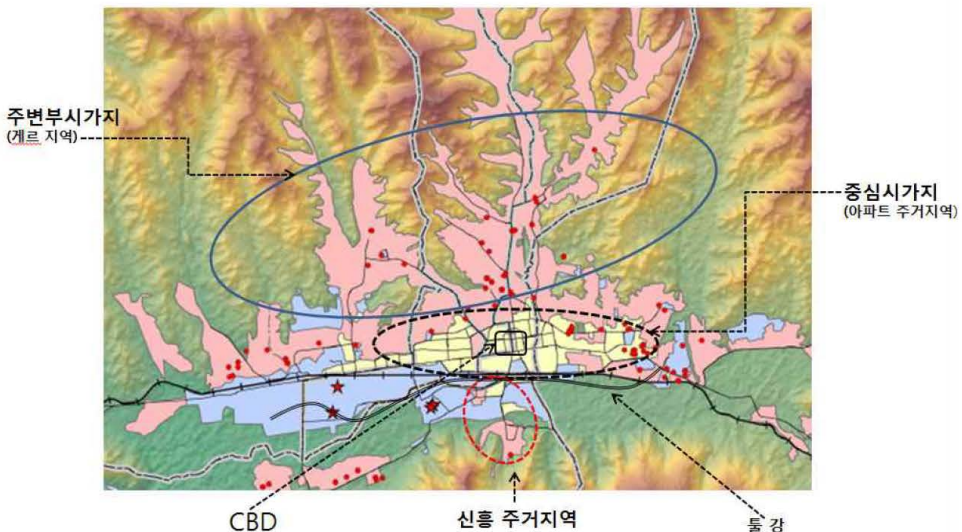
답사를 준비하면서 알았지만, 몽골의 도시화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 그리고 300만 인구의 거의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할 정도로 절대적인 1극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보자. 국토 면적이 남한의 15배인 나라에서 인구 300만 명 중 150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산다고 하면, 나머지 지역은 어떤지. 이 유목민과 초원의 나라에 이렇듯 수도 울란바토르에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1990년대 초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하니, 몽골의 도시화 역사는 3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울란바토르의 인구는 1990년 567,000명에서 2013년 1,345,000명으로 불과 23년 만에 230% 증가하였다. 도시 하부구조는 집중하는 인구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교통체증도 그에 따르는 도시문제일 수밖에 없다.



[울란바토르의 아파트단지와 시내의 교통체증,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를 보는 것 같다.]

울란바토르는 공간적으로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도심을 형성하는 중심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이 주로 아파트로 구성된 중심시가지, 그 주변에 넓게 분포하는 이른바 주변부 게르(Ger)지역, 그리고 울란바토르의 중심부 남측을 동서로 흐르는 툸 강 이남에 조성되고 있는 신흥 주거지역이다.



[울란바토르의 공간구조, 붉은 별은 대규모 열병합 발전소이고, 붉은 색 점은 게르 지역에서 이용되는 소규모 열전용 보일러의 위치이다. 출처: 불리에르덴, 2015,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연구: '게르'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의 지도를 수정한 것이다.]

중심시가지 영역은 1990년대 급속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부터 조성된 도시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회주의 시대 공급되었던 낡은 아파트들이 지금도 상당수 있다. 이런 아파트들은 최근에 지어진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층고가 높은 아파트와 비교되기 때문에 쉽게 구분된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갖다 놓아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울란바토르의 중심시가지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마치 송유관처럼 건물들 사이로 도로를 따라 놓여 있는 굵은 파이프들이다. 이것은 송유관이 아니라 중심시가지의 아파트들에 난방을 제공하는 파이프들이다. 사회주의 시절, 국가는 주택뿐만 아니라 난방과 온수도 중앙집중식으로 각 아파트에 공급하였다.



[왼편은 체제 전환 이전에 건축된 저층 아파트, 오른쪽에는 체제 전환 이후 건축된 고층 아파트이다.]



[난방을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와 파이프]

문제는 이러한 중앙집중식 난방 제공이 주변부 게르 지역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변부 게르 지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주택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이 도시 주변부에 몽골 전통주택 게르를 짓고 거주함에 따라 게르 지역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던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판자촌이나 달동네처럼 일종의 도시빈민지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게르 지역에 게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게르 지역의 집들을 보면, 보통 허름한 한 동의 단독주택과 역시 한 동의 게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게르 지역에는 중심시가처럼 난방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난방을 해결해야 하고 여기에 저렴한 석탄이 사용된다.

몽골의 겨울은 길고 매우 춥다. 7월 하순 몽골의 답사 기간 중 게르에서 숙박할 경우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 난방용 난로에 불을 지펴야 했다. 이런 환경이니 몽골에서는 거의 8개월 이상 난방을 해야 한다. 긴 겨울에 저렴한 석탄을 사용한 난방은 울란바토르의 대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투명한 파란 하늘에 초록색 초원과 달리 뿌연 매연으로 가득 채운다. 울란바토르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 이런 현실이 유목민과 초원에 나라에서 상상이나 갈 일인가?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 7월 하순 연중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투명하지 않다. 몽골도 7월 하순은 우기에 해당한다. 오른쪽 사진에서 먹구름과 도시 한 가운데 우뚝 선 열병합 발전소의 굴뚝을 볼 수 있다.]

울란바토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만이 아니다. 도로 포장은 물론이고 여타 도시기반시설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도시문제는 사실 몽골만의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과거 그러했고, 유럽의 선진국들도 산업혁명 초기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더욱이 불과 20여년 만에 인구가 2, 3배로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울란바토르의 게르 지역, 허름한 일반 주택과 그 안에 함께 있는 전통주택 게르가 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강남과 유사한 성격의 신흥 주거지가 최근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울란바토르에는 중심시가지를 중심으로 그 남쪽에 툼이란 이름의 강이 마치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처럼 동서로 흐른다. 신흥 주거지는 이 강을 중심으로 주로 강 건너편 남쪽에 형성되는데 외형상으로 아주 고급의 고층아파트들이 이곳에 건설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고급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고급 레스토랑, 커피숍 등이 몽골의 고소득층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까지 있다. 이 지역은 도시환경도 정비가 잘 되어 있을 뿐더러 주변에 게르 지역도 별로 없고 울란바토르의 심각한 대기오염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마치 툼 강의 이북과 이남은 마치 서울의 강남과 강북이 비교되는 것과 같다.

실제로 몽골 인들은 이 신흥 주거지역을 강남이라고 부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명 이상의 몽골 인들이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으로 체류하고 있다. 이 인구는 몽골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상당한 수준이다. 때문에 한국을 경험한 몽골 인들은 서울의 강남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 체제 전환 이후 몽골은 경제성장률이 거의 매년 10%를 넘을 정도로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부유층들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공간을 울란바토르에 만들길 바란다고 할 수 있다. 울란바토르에도 도시의 사회공간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과도한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울란바토르의 신흥 고급 주거지역, 오른쪽 신개발지역 사진에는 기존에 있던 게르들이 아직 철거되지 않고 여기저기 중간에 보인다. 파란색 건물은 국제학교이다.]

에필로그: 그래도 유목민과 초원은 있다

울란바토르를 보면 몽골에 부는 도시화의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울란바토르를 조금만 벗어나면 몽골은 여전히 몽골이다. 그곳에서 끝없는 광활함과 초원, 수많은 가축 떼, 유목민과 게르는 몽골의 정체성을 절대적으로 규정한다. 몽골의 광활함은 미국의 대평원이나 헝가리의 푸스타 평원과 다르다. 미국의 대평원은 옥수수 밭, 콩 밭, 때로는 가축을 방목하는 목장을 채워져 있지만 몽골의 초원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저 광활하다. 초원에서 가끔 만나는 가축 떼도 목장의 개념이 아니다. 기차로 하루 온종일을 달려야하는 푸스타 평원도 몽골에서 만나는 평원과 다르다. 푸스타 평원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 사람이 산다는 느낌이 있지만, 몽골의 초원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가끔 유목민의 게르가 있다.

몽골에서 게르와 말은 이동의 상징이다. 도시를 벗어나면 말은 지금도 유력한 교통수단이고 게르는 단지 전통주택이 아니라 보편적인 주택이다. 게르는 유목을 의미하고 도시는 그와 대립되는 정주를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울란바토르의 게르 지역에서 보듯이 몽골 인들은 게르를 도시에까지 가져왔다. 몽골이 현재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 있지만, 유목과 이동을 상징하는 게르는 몽골의 정체성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몽골에 부는 도시화 바람이 아무리 거세어도 초원이 있는 한, 유목민이 있고, 게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몽골의 전형적인 산림과 초원지대, 도로가 소실되는 지평선]



[초원의 가축 떼와 유목민의 게르, 유목민이 완전히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저기 몇 개의 터를 마련해 놓고 계절에 따라 옮겨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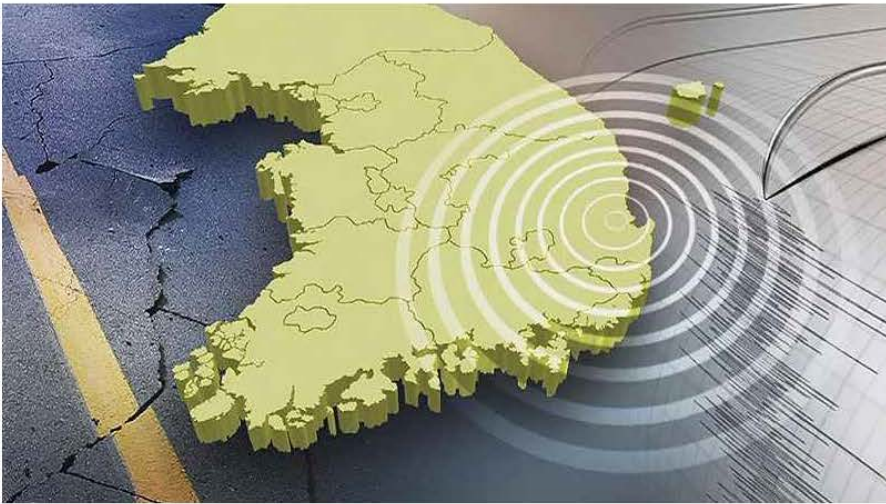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에 있는 HUSTAI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본 초원의 사막화 현장]

제 5장 . 지리 관련 핫 이슈

1.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규모 5.4 지진. 2016-9-12 경주지진 이후 최대 규모

2. 포항서 5.4 강진...사상 첫 수능 일주일 연기

기상청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규모 5.4 지진"...9·12 경주지진 이후 최대 규모



[조선일보=권순완 기자] 경북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기상청 관측 사상 최대 규모(5.8)였던 지난해 9월 12일 경북 지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기상청은 15일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10도, 동경 129.37도다. 지진의 깊이를 9km로 파악됐다.

기상청은 당초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점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가 잠시 뒤 수정했다.

기상청은 규모 5.4 지진에 앞서 오후 2시 22분 32초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고, 2시 22분 44초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나는 등 두차례 전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4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7km에서 규모 3.6의 여진도 발생하는 등 수차례 여진이 이어졌다. 이날 지진으로 경북과 부산·경남뿐만 아니라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 대부분 건물 흔들림 등 진동이 감지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의 여파로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등이 일시적으로 불통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지진 발생 지점이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어 해일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17-11-15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포항서 5.4 강진...사상 첫 수능 일주일 연기

작년 경주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 안전 우려에 대입수능시험 23일에 시행



15일 발생한 포항 강진 여파로 대입수능능력시험(수능)이 1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16일 치를 예정이던 수능을 안전상의 문제로 1주일 뒤인 23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포항 지진 발생 직후 “예정대로 16일 수능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와 논의 끝에 수능을 연기하기로 이날 밤 결정했다.

교육부가 수능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포항교육지원청이 이날 수능 연기를 교육부에 건의한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포항교육지원청은 “포항은 지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수능을 치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역 14개 고사장 가운데 일부 고사장은 벽에 금이 가는 등 시험을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곳도 있고, 강한 여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능이 전제지변 등으로 연기된 것은 수능 도입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경주 강진에 이어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포항에서 또 다시 발생하자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내며 밤새 여진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다.

이날 강진으로 포항지역에서는 상점에 진열된 상품들이 쏟아져 내렸고 공동주택 기둥(필로티)이 꺾이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건축물 외벽이 갈라지고 일부 도로 바닥에 금이 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주택의 창문 유리가 깨지고 무너져 내린 외벽 등이 주차된 차를 덮치는 사례도 속출했다.



지진으로 파괴된 필로티 형식의 기둥. 위태로운 모습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지진 발생 직후 도내 각급 학교에 '학생귀가' 등 긴급조치를 내렸다.

상대적으로 진동이 약했던 대구지역에서는 학생귀가 등의 조치는 없었다.

이날 진앙지에서 약 45km거리에 있는 경주 월성원전을 비롯한 모든 국내 원전은 발전정지나 출력감소 없이 정상운전 중이다.

월성1발전소에서는 지진감지 경보가 발생해 즉각 설비 점검에 나섰다. 원전 측은 지진발생 후 설비고장 및 방사선 누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울진 한울원전도 발전정지나 출력감소 없이 6개 원전이 안전하게 정상운전 중이라고 밝혔다.

2017-11-15

대구일보 김창원·김용희·이혜림 기자

제 6장 . 지교 연락망 및 편집후기

1. 지리교육과 연락망
2. 편집후기

편집후기

14학번 김태현 - 열정적인 편집부장 덕으로 큰 고난 없이 지구마을 24호가 편찬되어 정말 즐겁습니다. 힘들다는 표시는 꾸준히 내면서 일은 열심히 하는 편집부장 문성제 학우에게 많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구마을 편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8학번 신입생들과 그 외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지구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학번 문홍엽 - 책은 늘 보는 것이었고 책을 쓰는 이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마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해보건데 특별함 못지않게 여러 사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꼈고 그렇기에 이 책의 완성이 더욱 뿌듯하였습니다. 알찬내용을 위해 기고해주신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구마을의 특성상 신입생들이 특히 고생해줘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17학번 학우분들이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다가올 18학번 신입생 여러분들께 부족하겠지만 이 책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